

China Weekly Issue

CXMT 상장 완료, 향후 투자전략은?

- CXMT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465.8% 급등, A주 시가총액·거래대금 신기록 달성하며 시장 관심 고조
- 중국 메모리 산업 성장과 반도체 국산화 확대에 따른 밸류체인 전반의 실적 개선 기대로 차이나 반도체 ETF 주목
- 향후 과창50지수의 산업 구성과 투자 매력도 개선 기대. 과창50지수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도 여전히 유효

중국 최대 DRAM 기업인 창신과기(CXMT)가 과창판에 상장하며 중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대표 기업으로 부상했다.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465.8% 급등했으며, 공상은행과 귀주모태주를 제치고 A주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상장 당일 거래대금도 약 1,400억 위안으로 A주 단일 종목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시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CXMT의 상장은 중국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중국 AI·반도체 산업의 성장성과 자본시장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되면서, 해외 투자자 사이에서도 투자 접근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현재 해외 (개인) 투자자가 CXMT를 직접 매매하기는 쉽지 않다. 과창판은 시장 접근성과 거래 제도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하는 만큼, 중국 반도체·테크 테마 ETF를 통한 간접 투자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ETF별 벤치마크 지수와 조기 편입 규정에 따라 실제 편입 시점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MSCI의 조기 편입 적용 결정에 이어 DISK와 DRAM 등 글로벌 반도체 테마 ETF들도 CXMT를 편입하면서 글로벌 인덱스 및 ETF 운용사들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 메모리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글로벌 메모리 시장 내 중국 기업의 영향력 확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패시브 ETF를 통한 간접 투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향후 CXMT가 과창50, 과창종합, CSI300 등 주요 지수 편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경우 관련 패시브 자금 유입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과창50지수 조기 편입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과창50지수는 상장 후 1개월이 지난 기업 가운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일평균 시가총액이 과창판 상위 3위 이내에 들 경우 조기 편입이 가능하다. 현재 상위 3위권의 시가총액 기준은 (7/31기준) 약 8,000억 위안 수준이며, CXMT는 이를 크게 웃돌고 있어 올해 9월 정기 리밸런싱에서 조기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향후 CXMT의 기업가치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높은 기대를 실적과 기술 경쟁력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투자 관점에서는 CXMT라는 단일 종목보다 이번 상장을 계기로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이 기술력과 생산 규모 측면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반도체를 비롯해 LLM, 휴머노이드, 우주항공 등 전략 산업의 대표 기업들이 잇따라 과창판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창50지수는 중국 하드테크 산업 전반의 성장을 반영하는 대표 지수로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CXMT를 비롯한 중국 하드테크 산업의 성장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차이나 반도체 ETF와 과창50지수 ETF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이나 반도체 ETF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며, 과창50지수 ETF는 반도체뿐 아니라 LLM, 휴머노이드, 우주항공 등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투자 대상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중국·홍콩 시장에는 다양한 관련 ETF가 상장돼 있어 투자 목적과 선호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ETF를 활용한 중국 하드테크 생태계 투자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표 1. 과창50지수 상위 10위 기업 (시가총액 순)

	종목코드	기업명		업종 분류	시가총액 (억 위안)
비교	688825	CXMT	长鑫科技	DRAM 메모리 반도체	36,095.61
1	688981	SMIC	中芯国际	파운드리	10,614.54
2	688256	Cambricon Technologies	寒武纪	AI 반도체 (GPU/AI 칩)	6,948.92
3	688041	Hygon Information	海光信息	CPU/서버 프로세서	6,438.42
4	688347	Hua Hong Semiconductor	华虹宏力	파운드리	4,134.05
5	688012	AMEC	中微公司	반도체 장비 (식각)	3,294.98
6	688802	MetaX	沐曦股份	AI 반도체 (GPU/AI 칩)	2,756.17
7	688795	Moore Threads	摩尔线程	AI 반도체 (GPU/AI 칩)	2,681.42
8	688008	Montage Technology	澜起科技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	2,500.88
9	688072	Piotech	拓荆科技	반도체 장비 (증착)	1,932.93
10	688702	Centec Networks	盛科通信	통신 반도체	1,40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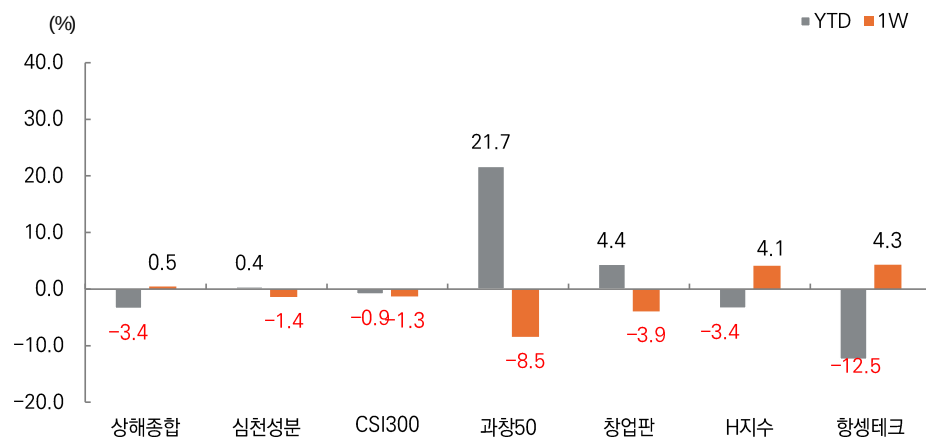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7/31 기준)

표 2. 과창50지수 및 차이나 반도체/테크 관심 ETF 리스트

테마		ETF명	티커	거래소
지수	과창판	China AMC SSE STAR 50 ETF	588000 CH	중국
		Tiger 차이나 과창판 STAR50	414780 KS	한국
		CSOP STAR 50 ETF	03109 HK	홍콩
반도체		Global X China Semiconductor ETF	03191 HK	홍콩
		Global X ASIA Semiconductor ETF	03119 HK	홍콩
		TIGER 차이나반도체	396520 KS	한국
테크		TIGER 차이나테크TOP10	0047A0 KS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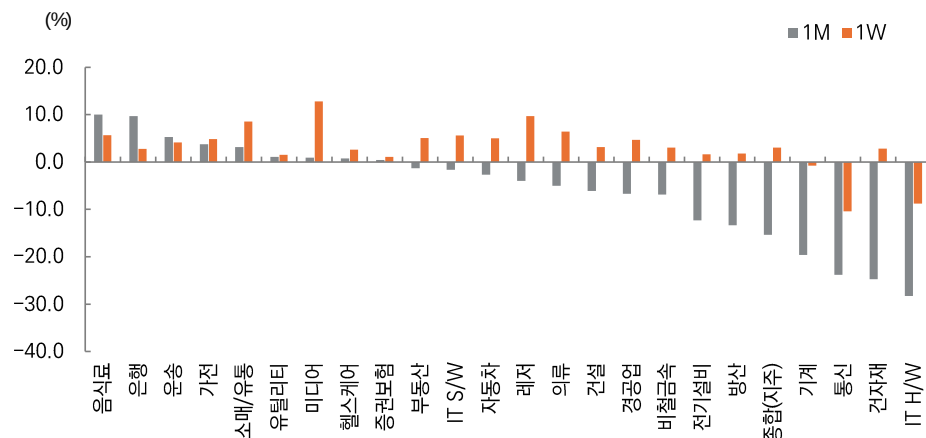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중국/홍콩 증시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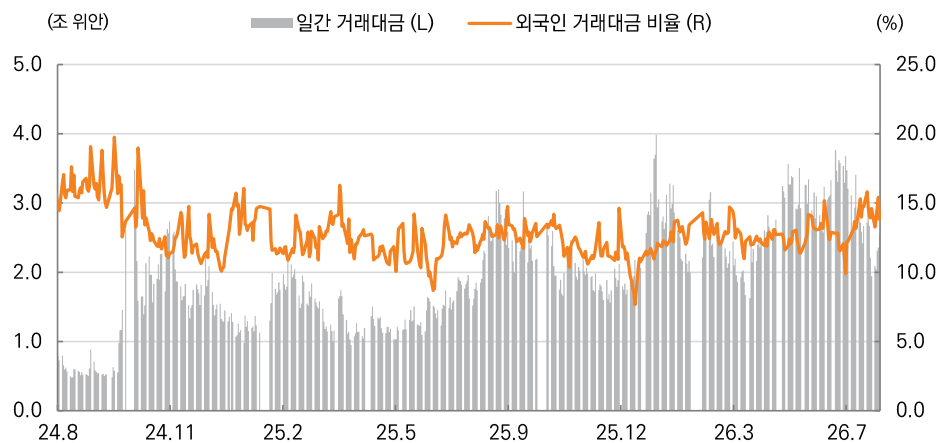
자료: Wind (7/31 기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중국 증시 상승/하락 섹터



자료: Wind (7/31 기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중국 증시 일간 거래대금 & 외국인 거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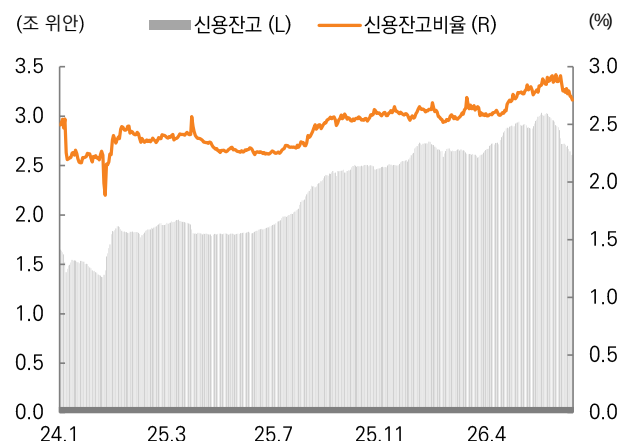
자료: Wind (7/31 기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역외위안화 추이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중국 증시 신용잔고 추이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3. 강구통 남하자금 순매수/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억 HKD/1W 기준)

종목명	종목코드	순매수	종목명	종목코드	순매도
Zhipu AI	2513.HK	27.53	SMIC	0981.HK	-53.82
GIGADEVICE	3986.HK	8.77	Tracker Fund of HK	2800.HK	-44.91
텐센트	0700.HK	3.94	알리바바그룹홀딩스	9988.HK	-39.16
MONTAGE TECH	6809.HK	1.01	장비광섬유케이블	6869.HK	-25.88
			샤오미그룹	1810.HK	-14.65
			메이투안	3690.HK	-12.63
			화홍반도체	1347.HK	-10.26
			시누크	0883.HK	-9.57
			건도적층판	1888.HK	-7.67
			POP MART	9992.HK	-3.85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4.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8/3(월)	8/4(화)	8/5(수)	8/6(목)	8/7(금)
7월 Rating Dog 제조업 지수				
야오밍강더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매매를 권유한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